

△브스뉴스△

오목교+전자상가



부산에서 자율주행 가능 VS 불가능

*이카드뉴스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제작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들다는 도시 **부산!**
이런 부산에서 **자율주행...**
과연 가능할까요?

현재로선 자율주행 차량이
부산을 다니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부산의 복잡한 지형을
다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운전을 하려면
앞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등
주변의 움직이는 대상들에 대한 정보인
‘동적 정보’와 함께



도로는 몇 차선이고 좌회전은 가능한지 등의
현재 위치와 관련된 지리 정보인
‘정적 정보’가 필요한데요,

특히 부산처럼
도로 사정이 복잡한 곳의 경우



정지선



신호등

기존의 지도에는 표현되지 않은
도로 곳곳에 대한 정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말 그대로 ‘암기’해야만 알 수 있는
각종 지리 정보들은 미리 기계에
입력을 시켜 놔야 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 돌발 상황에서
센서가 오작동하는 경우,



정밀하게 제작된 지도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자율주행시스템을 위해
각종 도로 정보가 총망라된
3차원 정밀도로지도를 제작 중에 있다고 해요.

2022년까지
전국의 일반 국도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마치기로 약속한 만큼

조만간 부산 일부 지역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는 풍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